

창조경제형 건설산업을 위한 전략 방향의 모색

최 석 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sicho@cerik.re.kr

대내외 환경 변화와 건설산업의 위기

국 내 건설시장은 2009년 153조원이었던 건설투자 규모가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중으로 2012년 기준 142조원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돌파구로 해외 수출이 거의 유일한 대체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해외건설은 아직까지 대형 건설기업의 시장이며, 리스크 증가로 인해 매우 도전적인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실제로 약 6만개 이상의 국내 종합 및 전문 건설기업의 대부분은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 건설산업의 성장 동력은 공공 정책과 투자였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공공 재정 부족 및 복지 정책의 강화로 건설산업의 공공 투자가 축소되면서 이제는 민간 주도형 산업 구조로의 혁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건설산업의 국가 경제 기여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건설산업은 고용 창출, 내수시장 진작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 경제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되었으나 이러한 시각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영역에서도 성장 기조인 창조경제 산업군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경제민주화 영역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근본적인 위기는 성장 엔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 전망 기관인 Oxford Economics는 각국 건설시장의 성장을 가늠하는 잣대로 1) 인구 성장률, 2) 도시화율, 3) 경제 성장률을 대표적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가구당 1.2명)은 OECD 최저 수준이며, 도시화율은 85.4%(OECD 기준)로 일본과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경제 성장률 역시 지난 10년 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세계 건설시장의 국가별 비중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2%에서 2020년은 2% 이하로 주요 순위에서 탈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Oxford Economics 2011). 참고로 일본은 2020년의 건설시장 비중이 6% 정도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건설산업은 각종 위기 탈출과 新성장 산업으로 변모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돌파구를 찾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집 위기의 건설산업, 성공 전략 세워야

건설산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 엔진으로 현 정부의 창조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가 건설산업에 주는 의미

창조경제는 창의성을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경제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민 창의성과 과학 및 ICT 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간,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강조하고 있다. 개도국형 양적/외연 성장에서 선진국형 질적/내연 성장을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현 정부의 창조경제는 크게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 기술의 발전,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경제민주화, 안정적 경제 운영, 중소기업의 주역화 등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창조경제의 내용은 정부가 제시한 6대 전략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각 전략별 내용과 연계할 수 있는 건설산업의 주요 활동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창의적 지적 재산의 활용 : R&D 등을 통해 특허, 신기술 등 지적재산권의 현장 적용 가속화
- 2) 新시장 창출 : 해외 시장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에서의 新성장 동력 발굴
- 3) 민간 투자 활성화/규제 개선 : 재정 부족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등 민관 협력 사업 확대와 관련 규

제 개선

- 4) 첨단 기술/ICT 기술 도입 및 활용 : 첨단 건설자재, 공법 기술, 재해재난, 에너지, 친환경 기술, 정보화 기술 등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
- 5) 창의적/글로벌 인재 양성 : 대학/재교육/평생 교육과 연계된 대학 및 기업의 양성 프로그램 혁신
- 6) 경제민주화 : 대·중소 상생, 원·하도급 관계 등 산업 생태계의 불합리 해소 등
- 7) 정부가 일하는 방식 : 각종 정책/제도/기준 등의 혁신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체계 확립(발주·입·낙찰 제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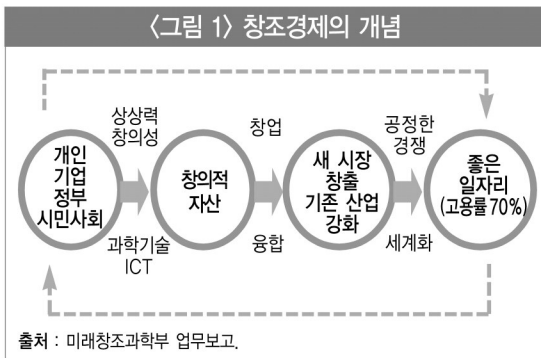
창조경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각종 전략을 해석해보면 실제로 건설산업에서 오랫동안 고민하였던 분야임을 알 수 있다. 다만, 혁신과 개선 대상 자체보다는 달성 방법과 주체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인력, 기술, 사업, 기업,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열식의 통합 및 연계 등이 아닌 실질적인 융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깊이 새겨볼 만한 대목이라 판단된다. 정리해보면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형의 시장 선도 융합형 사업, 상품, 기술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

창조경제형 건설산업의 방향

창조경제형 건설산업으로의 성장에 필요한 각종 긍정적 성장 요인은 현재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도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그림 2) 참조). 너무나 쉬운 이야기이지만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고 긍정 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각종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림 3〉은 전체는 아니지만, 창조경제형 건설산업을 위한 분야별 추진 메커니즘의 개념을 제시한 것이

〈그림 1〉 창조경제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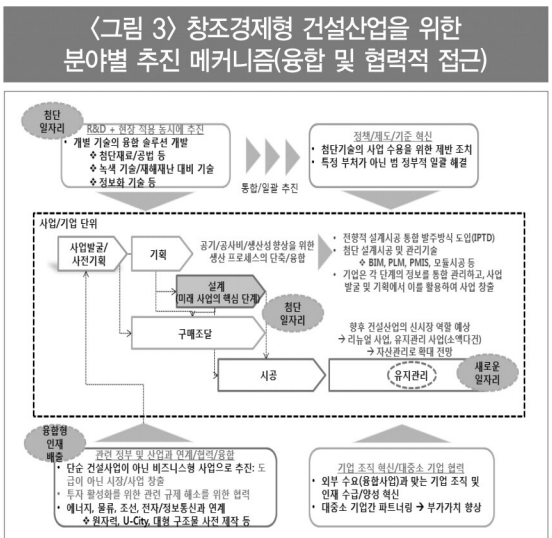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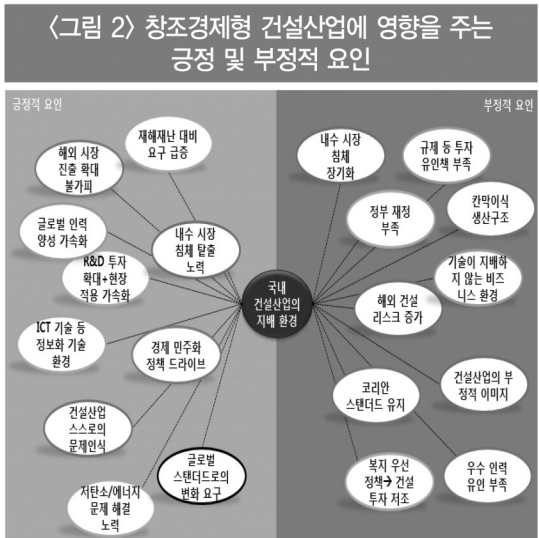


다. 부문은 크게 1) 기술 개발, 2) 정책/제도/기준 혁신, 3) 사업과 기업 단위의 혁신, 4) 정부 및 산업의 융합, 5) 기업 혁신 및 협력 등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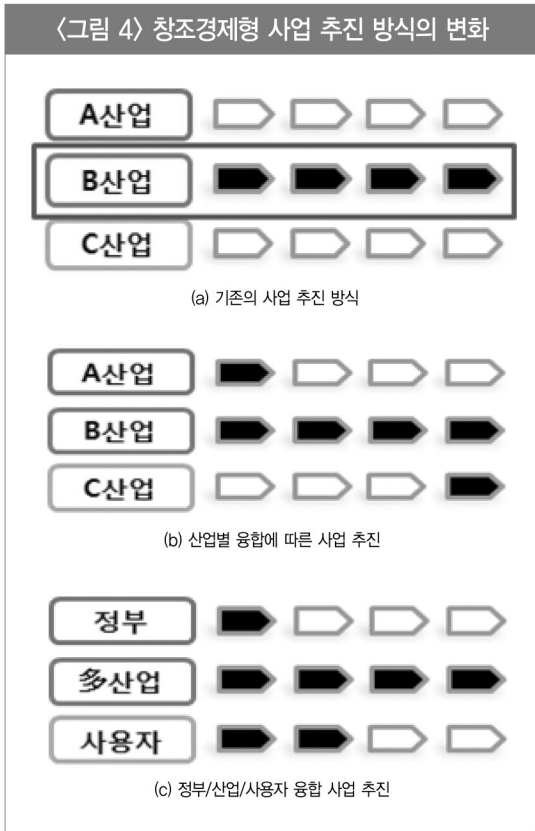
- 1) 기술 개발 : 현재의 기술 개발 체계를 R&D와 현장 적용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공의 기술 개발 분야는 건설 기업이 직접 하지 못하는 부문으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중복 투자는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임. 그리고 실질적 성과를 위한 기획과 후속 조치, 사업화 등 소프트/비즈니스 영역의 R&D도 강화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나열식 학문/학제적 접근이 아니라 실제적 융합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발굴이 필요함.
- 2) 정책/제도/기준의 혁신 : 설계와 시공에 첨단 기술을 즉각 반영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특정 부처가 아닌 범정부적 일괄 해결 노력이 필요함.
- 3) 사업과 기업 단위의 혁신 : 사업 발굴에서 유지 관리에 이르는 생애주기 프로세스의 단축과 융

합을 위한 발주 방식, 첨단 설계 및 시공 기술의 도입, 그리고 정보화 기술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함. 특히, 향후 건설산업의 新시장 역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지관리 단계의 각종 사업에 대한 新사업 창출이 요구됨.

- 4) 정부와 산업의 융합 : 향후 사업은 단순 도급사업이 아닌 비즈니스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이 필요함. 제도 역시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 에너지, 물류, 조선, 전자/정보통신 등의 산업간 융합 사업의 발굴 및 기술적 협력과 융합이 필요함. 협력의 범위 역시 정부와 산업을 넘어서 사용자까지 확대하는 전략도 필요함.
- 5) 기업의 혁신 및 협력 : 새롭게 부각되는 사업 방식과 시장에 따라 기업의 조직 역시 자연스럽게 외부 수요에 맞게 혁신되어야 함. 이를 지원할 인재 교육 및 양성 체계도 변화가 필요함. 건설



특집 위기의 건설산업, 성공 전략 세워야



자료 : 심영섭, 산업연구원(2013)에서 (a), (b) 그림 인용.

산업은 특징상 대형 건설기업이 新시장 창출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특징도 가지고 있음. 대·중소 기업간 파트너링 강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향상시켜야 함.

강한 중소기업을 강조하는 창조경제형 건설산업을 위해서는 우선, 대형 건설기업의 선도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의 대형 건설기업이 글로벌 최고 기업을 목표로한다면 현재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변화 전략의 구사가 필요하다. 참고로 세계적 건설기업인 Strabag의 경우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에 약 95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생애주기의 각 프로세스의 낭비를 제

거하기 위한 통합과 연계를 강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업으로는 유럽의 스마트 시티 구상이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도시들에 스마트 인텔리전스 기술과 환경 친화적 기술을 적용하여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효과를 예측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최종 사용자의 참여, 즉 도시, 학교, 아파트 사용자 및 산학연이 협력해서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지속 가능한 건설산업 발전 기조로도 가치 있어

정부의 성장 기조인 창조경제의 주요 실천 전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산업이 계속해서 고민해 왔던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추진 방식과 체계에서 융합과 협력, 그리고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창조경제에서 강조하는 각종 키워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건설산업의 발전 기조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해소와 혁신이 필요하다. 특정 법과 제도가 아닌 연관된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기술, 프로세스, 조직 혁신 등을 통해 사업 혁신형 및 융합 기술형 기업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사업 혁신형은 新상품 개발을 통해 新수요를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융합 기술형은 융합을 통해 기술과 상품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등 산업은 항상 시장의 불황과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와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건설산업 역시 유념해야 하겠다. CERIK